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2년 12월 12일

CUOMO 주지사, 주택보유자에 대한 은행 및 모기지 관리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신속 처리될 것임을 발표하다

이번 조치로 주택보유자들의 보험기금 수령을 막는 요식 행정이 줄어들게 되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금 납입에 대한 유예 기간도 추가 3개월 연장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요 은행들과 모기지 관리회사들이 뉴욕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신속 처리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험금 청구서는 은행 또는 모기지 관리회사의 승인을 거쳐야 주택보유자가 이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리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때에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조치로 보험회사가 주택보유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서비스국(DFS)은 모기지 관리회사 및 은행들이 몹시 엄격한 요건을 내세우며 청구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택보유자들의 갖가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뉴욕거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지연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조치로 주택보유자들은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택보유자들은 현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이들의 즉각적인 필요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수표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주택 수리 같은 일에 필요한 자금이 지연되면 가족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거나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달 동안 쓸데 없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 은행과 모기지 관리회사들이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감사 드리며, 다른 모든 은행과 관리회사들이 경쟁업체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Benjamin M. Lawsky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주민들의 삶의 재건을 돕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 보험금 청구가 즉시 처리되도록 감시할 것이며 주택보유자 및 상공인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정된 모든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들 은행과 관리회사들이 뉴욕주의 복구가 속도를 낼 수

Korean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좋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오늘 모기지 지급 유예 기간을 세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 연장으로 허리케인 Sandy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은 징수기관과 부딪히거나 신용점수 하락 등의 피해 없이 대출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서비스국은 서비스 모기지 관리회사 및 은행들이 몹시 엄격한 요건을 내세우며 미리 수표에 서명하기 전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지나치게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택보유자들의 갖가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과 주택 수리에 보험금이 몹시 필요한 많은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로 더 많은 주택보유자들이 신속하게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 은행 및 관리회사:

- Bank of America
- Citi Mortgage
- JPMorgan Chase N.A.
- Wells Fargo Home Mortgage
- Apple Savings Bank
- Dime Savings Bank of Williamsburg
- Emigrant Savings Bank
- Homeward Residential
- M&T Bank, Nationstar
- New York Community Bank
- Ocwen Loan Servicing

은행 및 관리회사들은 Fannie Mae, Freddie Mac, 모기지 담보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부과하는 여러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Cuomo 행정부와 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은행 및 관리회사들은 이제 법규에 따라 주택보유자와 그 계약업체에게 주택 수리 자금을 즉시 제공해야 할 때 상당한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관리회사들은 생활비 또는 동산의 교체로 지정된 보험금 또는 재정지원금을 즉시 지원하고 어떤 기금이든 미납된 대출잔액을 초과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 생활비와 동산 금액이 보험금 또는 재정지원금에 항목 별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행 및 관리회사가 보험회사에게 이를 항목화하도록 요청하여 관련 자금을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Korean

- 은행 및 관리회사는 주택보유자 또는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과 같은 연방정부 지원 기업의 동의 없이는 보험금 또는 재정지원금 중 어느 부분도 대출금 상환 연체금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투자자와 규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자가 개별 은행 또는 모기지 관리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은행 및 모기지 관리회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대출금 상환의 3개월 유예기간이 자립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뉴욕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Cuomo 행정부의 촉구로 은행과 모기지 관리회사가 이 기간을 최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유형의 재정지원에 대해 총 6개월이 연장 조치되었습니다.

- 주택 압류 및 퇴거 조치 연기.
- 대출금 납입 연체료 면제.
- 일부 상황의 경우, 대출자의 구체적인 사실 및 상황을 근거로 대출자가 폭풍 피해를 입고 재정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 대출금 납입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투자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보유자들은 자신들의 담보대출 보유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은행 및 관리회사는 주택보유자들에게 연장 기간 동안 납입하지 못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결제 방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Lawsky 감독관이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금융업계와 선도적으로 협력해주신 점을 치하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지사와 함께 주택보유자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itiMortgage 사장 겸 CEO인 Sanjiv Das가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기반을 둔 경제정의기관인 NEDAP의 공동 이사, Josh Zin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EDAP은 폭풍 피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에 모기지 관리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힘써주신 Cuomo 행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모기지 관리회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압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폭풍 피해 지자체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Homeowner Defense Project, Staten Island Legal Services의 공동 이사인 Margaret Bec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ten Island의 해안선을 따라 폭풍으로 찢겨나간 주택들의 보유자들에게서 보인 투지와 기개가 놀라울 정도이지만 이제 이들은 지쳐 있습니다. 힘든 육체적인 노동도 피해를

주지만, 불필요한 요식 절차도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서비스 당국의 옹호 활동과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주택보유자들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준다는 은행의 약속은 천천히 예전의 생활로 복귀하려고 애쓰는 주민들의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